



민주 광주·전남 공천심사 마무리 현역의원 4~5명 탈락설

이르면 오늘 발표...광주 동구는 무공천

민주통합당이 지난 2~3일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 예비 후보들에 대한 공천 심사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5일 컷-오프(후보 압축) 결과를 발표한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에서 4~5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컷-오프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지역 정치권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4일 민주통합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진행, 광주·전남 등 호남과 서울 등 수도권의 최종 공천 심사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도 이날 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최종 공천 결과를 5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심위 심사 결과에 대해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지역의 경우, 결과 발표가 하루 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최대 4~5명에 이르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의 1~3차 공천 심사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탈락이 거의 전무한데다 정치적 뒷받침 호남에서도 물갈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혁 공천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심위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 교체율은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전남에서 3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불출마하거나 수도권으로 진출했고, 컷-오프 탈락이 3명 이상으로 전망되는데다, 최종 경선 탈락도 최소한 2~3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천 심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폭풍도 심각할 전망이다. 당장, 민주통

합당의 공천 심사와 관련, '친노 공천'이라는 당내외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호남 물갈이가 이뤄진다면 무소속 출마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 같은 공천 내용은 투신자살 사태 등 선거인단 모집 부작용으로 촉발된 민주통합당에 대한 호남 민심 이반과 맞물려 총선 구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 모 국회의원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탈락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내 특정 세력에 의해 좌우된다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오는 17일까지 경선을 마무리해 총선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이며 광주·전남지역 후보 경선은 이르면 12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지난 2일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투신 자살사태가 발생한 광주 동구에 대해 전략공천 방침을 철회하고 아예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주선 의원·유태명 청장 소환 초읽기

광주 동구 '선거인단 불법모집' 수사...구의원·통장 등 6명 영장

선거인단 불법 모집과정에서 벗어난 전직 동당의 투신자살 사건과 관련 유태명 동구청장, 박주선 동구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면>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중)는 지난 2일부터 현역 동구의원인 남모(여·56)씨를 비롯 사조직인 동구구사당여성회 계열 1동 회장 정모(여·47)씨, 계열 1동 6통장 이모(여·60)씨, 8통장 조모(여·51), 7통장 손모(여·66), 4통장 이모(64)씨 등 6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결과 남 의원과 정씨는 숨진 전직 동장 조모(65)씨와 '비상대책추진위원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해 민주

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6차례 회의에 참석해 박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씨는 숨진 조씨로부터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또 이씨 등 통장 4명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통장 신분으로 비상대책추진위원회에 가입해 박 의원에 대한 지지 활동을 하고 실비 명목으로 숨진 조씨로부터 각각 30만원씩 받은 혐의다.

남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 수사는 현 동구 국회의원이자 예비후보인 박 의원과 유 청장의 개입 및 지지 여부에 그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외에도 다른 동당의 유사 조직, 추진위원회 상부 조직이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공무원들

의 개입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선거인단 압수한 자료 중 민주당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된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모바일 투표 대상자 선정 실적'표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총 12명의 조장과 36명의 반원을 구성해 선거인단 1260명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2일 "북구 두암동 주민 A씨가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불법으로 모집한 의혹이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주민은 모 아파트 주민 자치위원장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구의 모 예비후보도 선거사무

소에 컴퓨터와 전화 수십 대를 설치해놓고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대리접수를 했다는 의혹이 중앙당에 접수되는 등 선거인단 불법모집 의혹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4
학부 062)605-1114

光州日報社

本社人事

- ▲鄭棋太 편집국 부국장
- ▲朴珍賢 편집국 부국장
- ▲崔宰豪 편집국 경제부장
- ▲林東煜 서울지사 취재부장
- ▲林汶澤 편집국 동부취재본부 취재부장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을 끝으로 23여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새출발하오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학력 및 경력 ●
- 광주일고(21회), 전남대 법대(76학번)
- 미국버클리대 로스쿨 국비연수
- 서울대 법대 최고지도과정
- 제28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18기)
-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순천지원 판사, 소년부 지원장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
- 전남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변호사 이재강 올림

- 업무개시: 2012년 2월 29일
- 개업소: 광주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층 201호
- 개업소연: 2012년 3월 23일(금) 16시~
- 대표전화: 062)236-1200 팩스 062)236-1210

www.hanilexpress.co.kr




블루나래호

제주가는 가장 빠른 배

제주↔완도 단100분

다자녀 가정을 응원합니다!

3자녀 이상 가족고객, 33% 할인!

- ▶ 기간: 2012년 중
- ▶ 대상: 3자녀 이상 동반 가족 고객
- ▶ 내용: 블루나래호 일반석 33% 할인 (하계/추석 특송기간 제외, 터미널 이용료 별도)

이벤트 상세 내용은 한일고속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문의전화 1688-2100